

개업집

간성읍 장수영양탕

육질 질기지 않고 담백한 맛



장수영양탕 우육기 대표는 맛의 진수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삼복 더위에 개고기만큼 몸에 좋은 건 없지요.”

지난 4월 간성읍 군청 입구 먹거리 골목에 장수영양탕집이 개업했다.

이 집의 장점은 순수 국내산 고기와 냉동육이 아닌 신선한 냉장육만을 사용하며, 고기는 한번 삶아 기름기를 짰 후 다시 한번 삶아 육질이 질기지 않고 담백한맛을 낸다는 것이다.

특히 이집의 대표 메뉴인 전골은 갈비부위를 사용해 알맞게 삶아 고기가 흐물거리지 않는다. 육수는 장과 천연조미료, 이집만의 비법양념을 넣어 텁텁한 맛이 없으면서도 깔끔하고 깊은 맛을 낸다.

한의학에서 개고기는 신장을 돕고 양기를 강하게 하는 효능이 있으며, 남여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원기를 회복하는 효능이 있어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환자에게 의사들이 권할 정도로 보양식중의 으뜸이라 할 수 있다.

장수영양탕 우육기 대표(56세)는 “20여년전 간성을 남천에서 ‘언덕위의 집’을 운영했었던 경험으로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진정한 맛의 진수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영양탕이 1만원, 영양전골 1인분 1만 5천원, 영양무침 1인분 1만 5천원이다. 추어탕도 있으며, 예약시 닭도리탕과 황태전골도 가능하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부터 밤 10시까지이다. 첫째·셋째주 일요일 휴무, 둘째·넷째주 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영업한다. <681-6010> 원광연 기자

‘50년을 넘어 다함께 미래로’

고성지역 농·축협 농협창립 50주년 기념 체육대회 열어

농협창립 50주년을 맞아 고성지역 농협과 축협이 지난 2일 고성종합체육관에서 농·축협가족 상생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50년을 넘어 다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임직원간 화합을 통한 원활한 영농지원 및 농업인 실익 증대를 도모하는 취지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와 거진농협·고성축협으로 구성된 ‘상생팀’과 금강농협·토성농협으로 구성된 ‘화합팀’으로 나눠 다채로운 운동 경기와 레크레이션으로 진행했다.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 박상기 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연합 행사를 통해 서로 격려와 위로로 화합의 장을 만들고, 직원간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무한 봉사로서 더 많은 실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현재 우리 농업여건은 한·미 FTA 수입개방 등 농업과 농촌,



‘50년을 넘어 다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본 대회에서 행사 전 금강농협 최민수 과장이 선수대표 선서를 하는 장면.

농협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무리 어려움이 밀려 온다고 해도 농협인과 농협이 일심동체가 되어 농업을 지키는데 앞장 선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살기 좋은 우리 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날 대회를 주관한 금강농협 최학철 조합장은 “오늘 농협창

립 50주년을 기념해 고성지역 농·축협가족 상생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원활한 영농지원과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해 임직원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건전한 조직 문화를 양성해 일류농협으로 발전시켜나가자”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농어촌공사 청간정 일대 청소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지사장 최도환)는 지난 5일 강원도유형문화재 제32호인 청간정에서 1사1문화재 지킴이 행사의 일환으로 문화재 주변 청소 및 경관관리 활동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는 2008년 청간정과 1사1문화재 지킴이로 인연을 맺은 이후 정기적으로 문화재 보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최광호 기자

4만명의 C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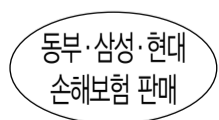


삼성생명 컨설턴트

삼성생명 CEO는 1명이 아닙니다
삼성생명에는 금융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4만명의 CEO가 있습니다
당신도 4만 삼성생명 CEO의 일원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 모집 ●지원자격 : 만 20세 이상의 남녀
- 요강 ●지 역 : 고성군
- 선발절차 : 직무설명회 > 면접 > 교육 > 등록

삼성고성보험대리점
☎682-4480



입사상담

- ◇김양희 010-3382-4011 ◇김지윤 010-4311-4985 ◇문순선 010-4769-2868 ◇원정숙 010-9243-2575 ◇유수현 010-7169-6594 ◇유은미 011-376-1752
- ◇이순성 010-4654-5659 ◇이춘옥 010-8798-4330 ◇정웅실 010-7681-4309 ◇정춘자 011-747-6123 ◇허금녀 016-341-3762